

개발자라면, 회사라면, 왜 오픈소스를 해야할까?

2019.10.16



Innovation
Academy

이민석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 |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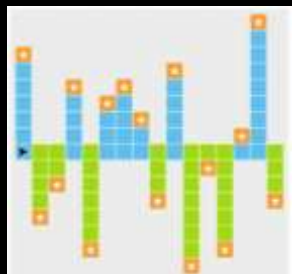
@강남,

POWERED BY



Innovation Academy





온라인
테스트

'19.11.1 - 11.30

오리엔테이션,
창의 캠프

12월 말~

1개월 집중교육
Piscine

'20.1.20~

42 | SEOUL

'20. 2월 말~

2년 지원



| SEOUL

는 그렇고요.. 오늘의 본론

개발자, 회사
왜 오픈소스, 왜 커뮤니티가
답인가?

개발자가 남아도는
회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개발자가 부족한 모든 회사
다른 대안이 있는가?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 It's **fun**
- It can lead to increased **happiness**
- **Learn** to code
- **Improve** coding skills
- Improve **production level** software **experiences**
- **Train** you in ways that other people aren't
- Provide a **platform** to do whatever you want
- Attract **quality fellow** developers
- Experiencing **critical mass**
-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 Involve in every **design decision**
- Build **features you want**
- Community and peer **recognition**
- Greater **job** prospects
- There are **good eyes** on who is contributing what
- It shows you're **innovative**
- Positions of **public trust**
- Direct **democracy**
- Trust enables **cooperation**
- **Self-organization** with shared goals
- Learn to communicate **positively**
- Learn **respect** other people's ideas
- It can **inspire** passion
-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 It's **idealistic**
- **It's the way of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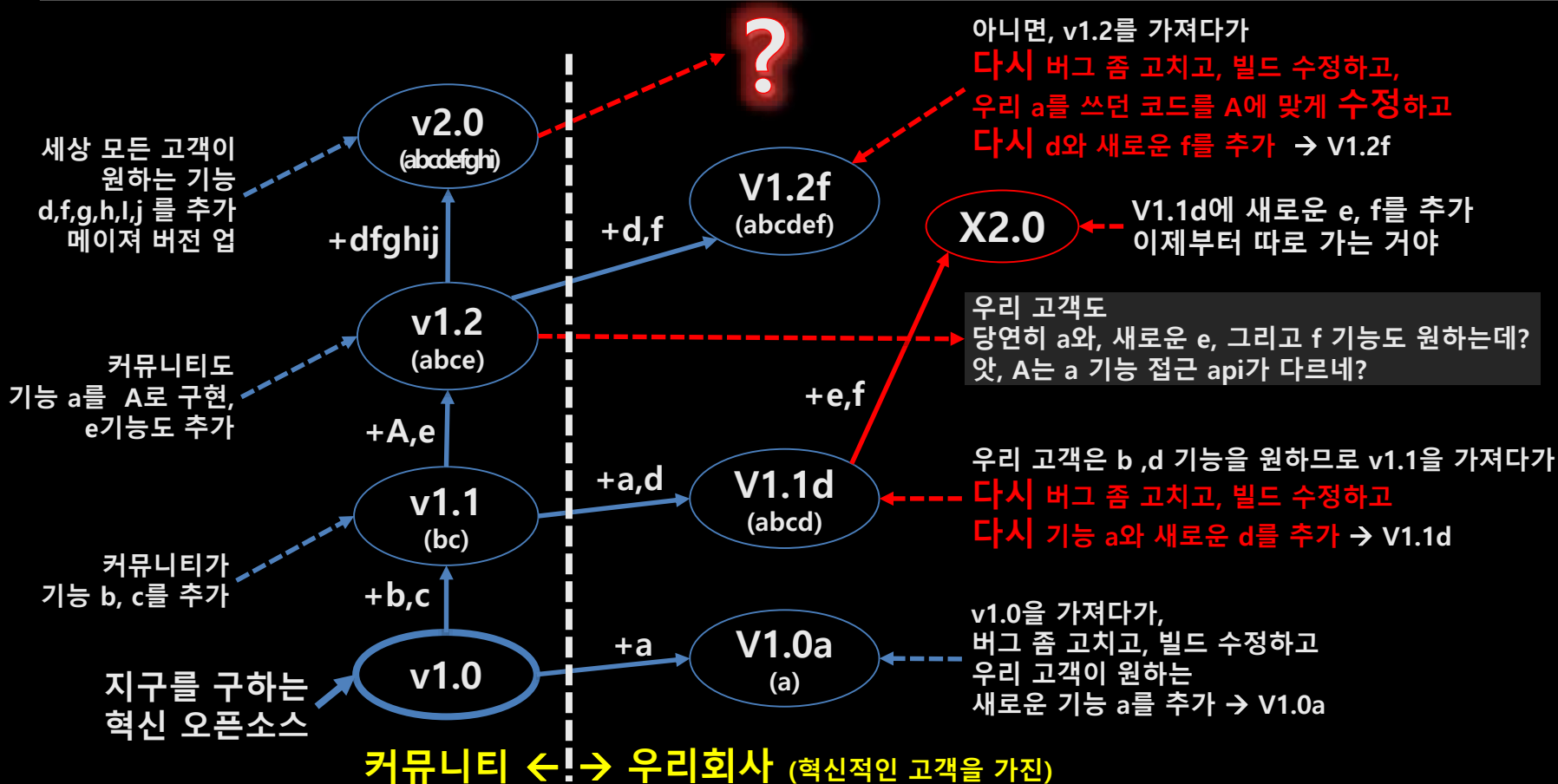
- **Multiplying** the company's investment
- Benefitting from the most recent **innovation**
- **Spreading** knowledge of the software
- Increasing the **developer base**
- Upgrading internal developer **skills**
- Building **reputation**
- **Recruiting** and retaining developers
- **Faster** startup of new companies and projects

개발자 x 회사, 왜 같이 오픈소스를 해야할까?

- 개발자는 **노가다**를 줄이고, 회사는 **비용**을 줄인다.
 - 개발자는 **더 좋은 동료**들과 일하고, 회사는 **더 좋은 개발자**를 얻는다.
 - 개발자는 **성장**하고, 회사는 **혁신**을 이룬다.
 - 개발자는 **유명**해지고, 회사는 **평판**이 좋아진다.
 - 개발자도 **재미**있고, 회사도 **재미**있다.
-
- 다른 대안이 없다.
 - **It's the way of the Futu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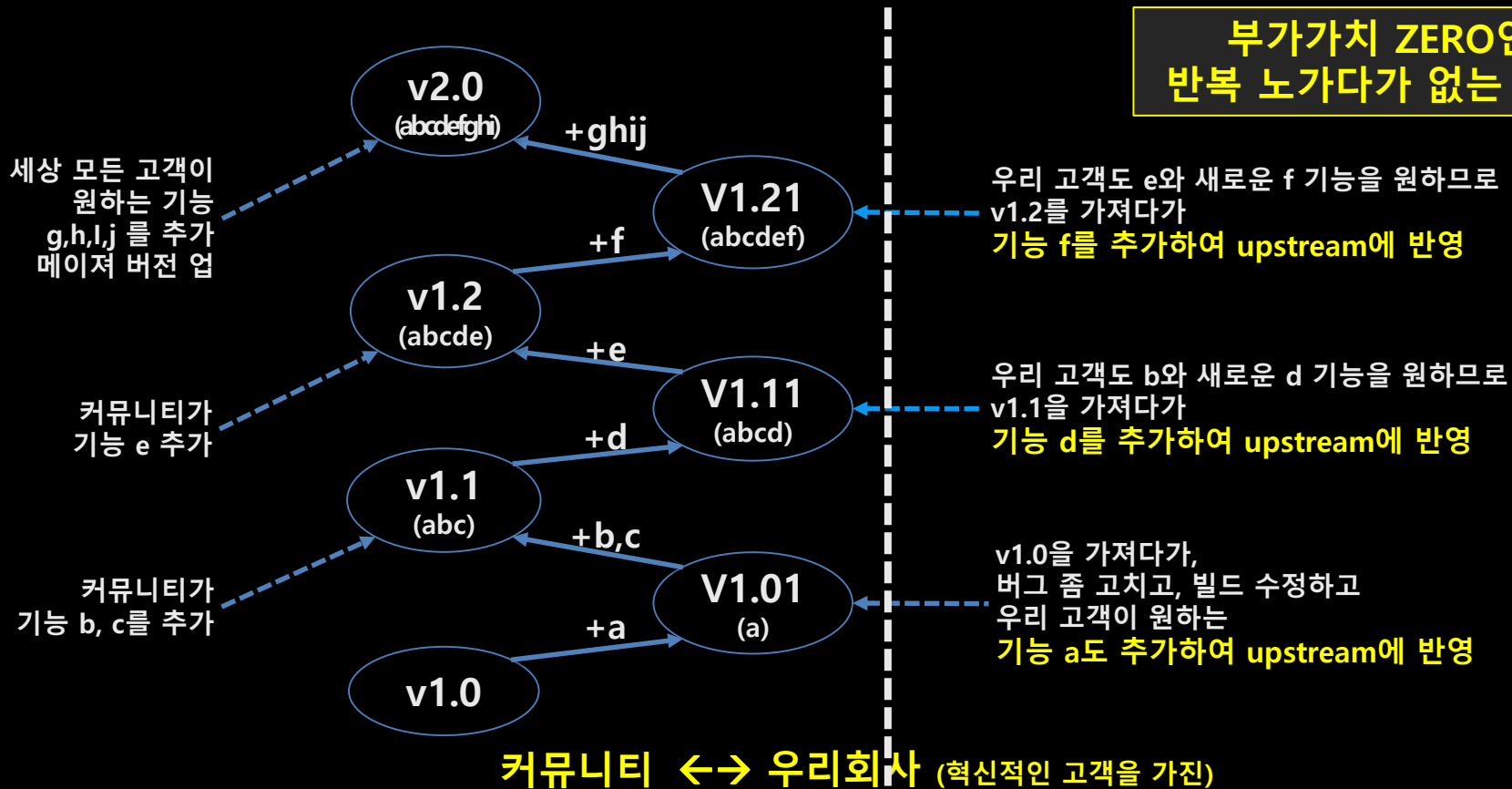
노가다 감소와 비용 절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안' Open Source Way



노가다 감소와 비용 절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Open Source Way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더 좋은 동료, 더 좋은 개발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커뮤니티의 쏠렙 개발자 →

질문에 대답해 줄 분이 필요해..

Online / Facebook Group

/ Study Group

멘토의 도움에 따른 빠른 학습

나도 쓸모가 있구나를 느끼며 성장

점차 쫄 하는 선수로

← 회사의 선수 개발자

학습 역량이 좋은 시다바리가 필요해..

Online / Facebook Group

/ Study Group

썰끔 리뷰에서 점차 진짜 리뷰로

몰랐던 기술 세상을 보며 동반 성장

점차 어장 관리 모드로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개발자 →

0. 커뮤니티에 나가야지

1. 첫날.. 약간 어색함
ICE-PACKING ππ 재미있는 척

2. 역시 어색.. 무서움.. 친한 척
친구들 이야기

3. Tensorflow가 어쩌구, React가...
정신없음, 정리안됨

오 역츨의 기운이...

← 회사의 고수

커뮤니티 활동 장려에 따른 의무감

첫날.. 완전 경계 모드
ICE-BREAKING : 개고생한 이야기

반성 모드, 들을 준비 그러나,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헐, 내가 저 때는 뭐했지?
있잖아 ~~

그게 말이지~~

세상에 나와 실력이, 두려움이, 마음가짐이 비슷한 사람이 많다는 **확신**

기다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다가서면 맞아줄 사람이 있다는 **확신**

내 코드도 쓸모가 있다는 **확신**

내 코드는 아직 개선할 것이 많다는 **확신** 합리적인 **의심**

내 코드에 문제가 있어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확신**

쪽팔림은 한 순간이고 역량은 평생 간다는 **확신**

나보다 못하는 인간도 있다는 근거 없는 **확신**과 내게로 오면 도와주겠다는 **결심**

우리 회사의 기술은 독보적 핵심 기술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결심**

이런거 만드느라 많은 투자를 하는 조직은 우리 밖에 없다는 **확신**

다른 회사 개발자가 우리 코드를 개선해줄 이유가 없다는 **의심**

커뮤니티에 나가면 우리 개발자를 잃게 될 거라는 **불신**

오픈소스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보안에 취약할 거라는 **의심**

다 만든 뒤 오픈해야 멋질 거라는 **확신**

오픈하면 개떼처럼 달려들어 우리 소스를 베껴갈 거라는 **의심**

개발자와 개발자들이 있는 커뮤니티

개발자 리크루팅 비용

개발자 이직에 따른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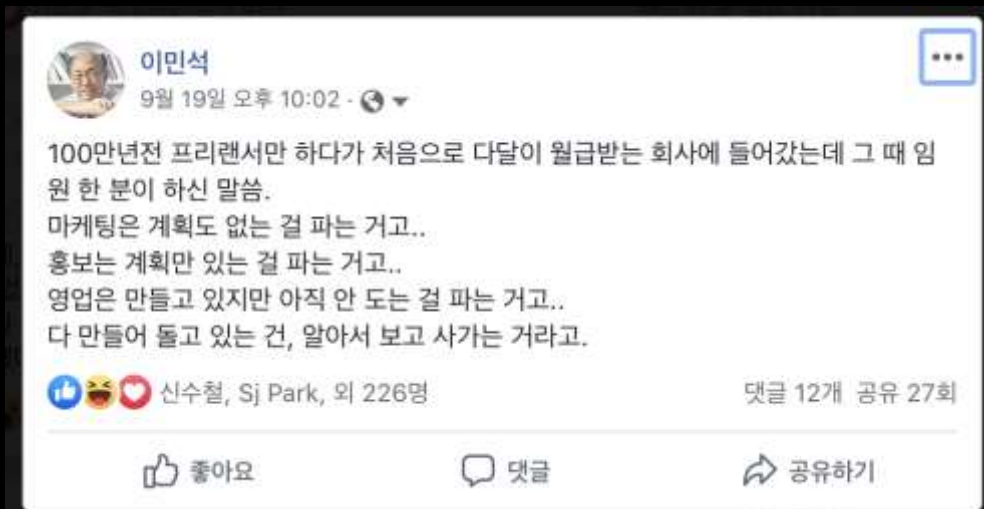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의미의 라이선스

소스 오픈이 아니라 사람 오픈

회사 내부와 외부의 연결

지금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완성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 지금 그 기능까지 오픈하고, 개선하는 것이 맞다.
- 먼저 오픈하고, 영업을 하자.
- 덜 완성된 기술의 아쉬움은 홍보로 채우고
- 우리의 기술적 이상과 꿈은 마케팅으로 채우자



오픈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 빨리 오픈하고, 빨리 알려져 널리 퍼드리고 돈 벌자.



우리 기술이 공개되는 것보다, 우리 실력이 탄로나는 것이 두렵다면

→ 반드시 오픈한다는 것을 일찍 결정하자.

→ 처음부터 오픈해서 개발하자.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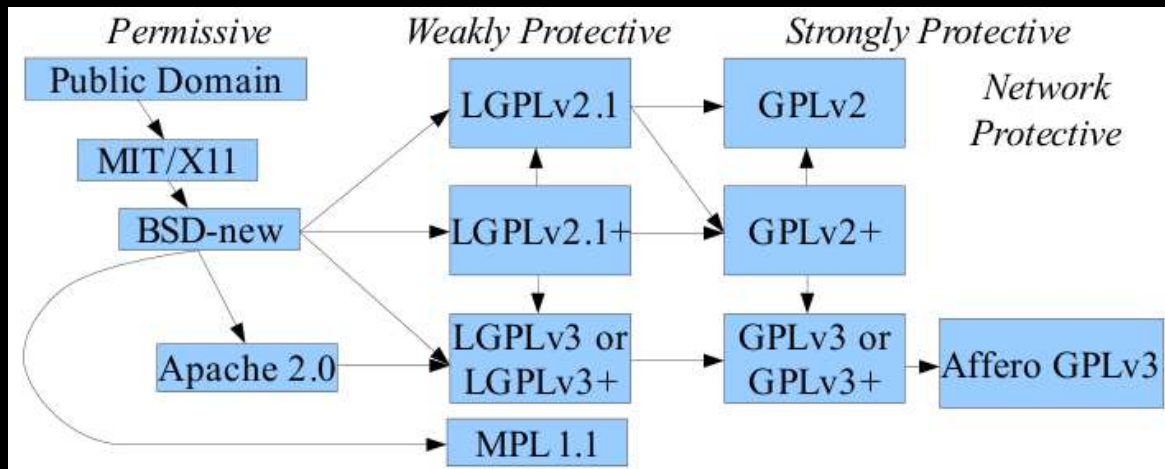
(열나게 홍보하기 전에는 아무도 안 본다. 걱정하지 말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들었다면

→ 우리도 오픈하면 대개는 별 문제 없다.

→ 100만가지 이유가 있어 오픈 안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다.



우리 회사 내부도 오픈이 안되었다면 $\pi\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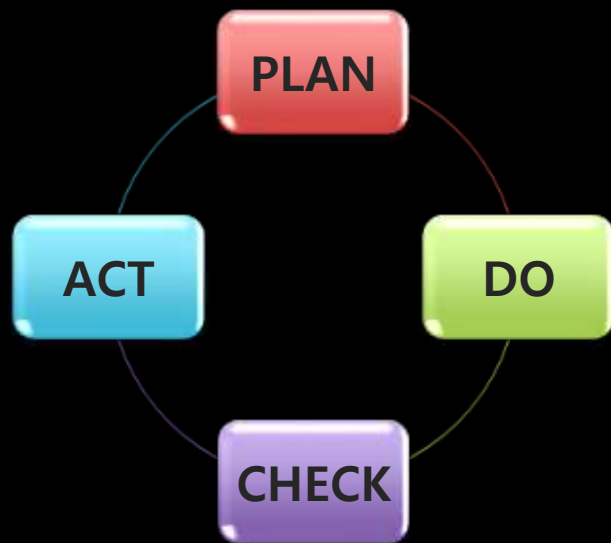
- 옆 팀 소스, 옆 부서 소스를 볼 수 있게 하자.
- 회사 내부의 개발자 커뮤니티를 먼저 살리자.
- 평가와 인적 '자원' 관리 중심의 HR에서 Tech HR로 바꾸자.



새는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나오려면 세계를 파괴해야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뭘 해야할지는 알겠는데 걱정이 된다면

- 일단 해보겠다고 결정하고, C-Level을 설득하고
- 약간의 계획과 예산 정하고, 담당자 정하고, 일단 해보고
- 결과 측정하고 개선 하자.
- 다른 일하는 것처럼 쿨하게 하자.



1. 어느 회사에 있는 그 '스크립트', 그것부터 오픈해보자.

→ github에 올리고 Facebook에 설명하자.

→ 세상을 구하기는 어렵다. 단 한 사람부터 구하자.

1. 기술 블로그를 써보자.

→ 뭔가 오픈했다면, 우리 기술과 다른 기술의 연동성을 쓰자.

→ 뭔가 안 오픈했다면, 남의 기술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쓰자.

1. 개발자의 컨퍼런스/해커톤/ 참여를 '일'로 인정해 주자.

→ 매일 나가면 안되겠지.. 두 달에 하루 정도.. 모았다 쓰게 하자.

→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분야라고? 사람과 상관 있는 분야다.

1. 회사 회의실/세미나실, 냉장고를 커뮤니티에 개방하자.

→ 착한 회사가 좋은 회사다.

1. 오픈소스는 좋은 것이여
2. 오픈소스는 소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3.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동료, 그런데 더 멋진 동료는 회사 밖에 있다.
4. 우리에게
하루 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았지만,
하루를 놀아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또렷한 기억이 있다.
뭔가 해야하는데 처음엔 시간이 없나?

그냥 날을 잡자.

THANK YOU

이 민석

<http://innovationacademy.kr>



제로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 No.1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전국 교육생 모집 설명회

교수, 학비, 교재가 없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 교육, 직접 경험하세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이노베이션을 역행 높은 개발자로 이끌어줄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입니다.
진도를 나가 시험 보는 방식이 아닌 프로젝트를 통하여 찾아서 배우고 깨닫는 방식.
결론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협업과 토론을 통해 같이 성장하는 방식.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방식.
이미 여러번 들어 경험했던 가장 재미있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함에서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교육은 최고의 열정으로만 나옵니다.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함께 성장할 당신의 도전을 기다립니다.